

신도조직 · 복지시설 갖춰야 사찰

정승국 교수, 불교사회복지포럼서 발표... "자원봉사활동에 큰 기여해"

신도회와 사회복지시설의 유무에 따라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크게 좌우되며, 이에 따라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불교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찰 신도회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정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는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12월 1일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3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의 일환으로 진행된 불교사회복지포럼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에서 정 교수는 "신도회가 조직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찰일수록 신도회가 조직돼 있지 않거나, 조직은 됐어도 활동이 미흡한 사찰에 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찰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승국 교수는 사찰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통한 포교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구본사 및 말사를 포함한 주요 500개 사찰을 선정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15개의 사찰 중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찰은 146곳으로 46.2%였다.

정 교수는 ▷주지 스님의 성별 ▷초하루 법회에 참가하는 월평균 신도수 ▷사찰 위치 ▷신도의 조직화 상태 ▷사찰 소재지의

지역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여부 중 어떠한 변수가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분석을 시도했다.

정승국 교수는 "사찰의 자원봉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는 주신도회 조직화 상태와 사회복지시설 여부였다"며 "이 가운데 신도 조직화 상태가 자원봉사활동 여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변수"고 분석했다.

반면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찰은 '신도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31.4%)', '자원봉사자 인원모집의 어려움(26.4%)', '재정 운영이 어려워져(22.4%)'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찰에서는 재정운영, 자원봉사 담당자 확보,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정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사찰일수록 자원봉사자 모집을 수월하게 하고 있었고 비구스님이 주지인 사찰일수록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덜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승국 교수는 자원봉사를 실행한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정 교수는 "사찰홍보, 사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미지 개선, 신도수 증가, 신도 이미지 개선 및 헌신도 개선 등에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이용권 관장(서호노인복지관),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하지만 초하루법회 신도의 수가 많을수록, 즉 사찰 규모가 클수록 자원봉사의 긍정적 효과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 사찰일수록 자원봉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 교수의 견해다.

정승국 교수는 "자원봉사 업무담당자가 있는 사찰이 그렇지 않은 사찰보다 긍정적 효과를 낸다"며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담당자 및 관리자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원봉사활동 기금조성을 통한 재정 문제 해결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과정 구축 ▷신도회를 통한 신도조직화 등을 사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지역사찰의 신도회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조기룡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는 '교구본사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강화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조 교수는 "조계종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화와 역량제고를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각오해야 한다"며 "교구본사가 직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확대해 중간 전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에 앞서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교체 신결사추진본부장)은 '붓다의 가르침의 현대적 의의와 나눔결사'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도법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는 불교계복지기관수가 증가하는 등의 양적성장은 있으나 질적성장은 이루지 못했다. 정부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받아서 불교세력을 넓히는데 쓰인다면 이는 오히려 불교복지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며 "도움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사람들이 원력을 세울 수 있도록 발굴하고 그들을 도와 질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5)

평화는 불교의 궁극적 목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열반(涅槃)의 증득에 있다. 초기경전에 언급된 열반에 대한 몇 가지 정의들을 살펴보자. 이른바 열반은 '갈애의 소멸'(tanhakkhaya, 愛盡), '만들어지지 않은 것', '무조건적인 것'(asañkhata, 無爲), '탐욕 없음'(virāga, 無貪), '적멸'(寂滅, nirodha), '불이 꺼짐' 혹은 '적정(寂靜, santi)'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이것은 참으로 '갈애'(tanhā)의 완전한 소멸이며, 단념이고 포기며, 그것으로부터의 해탈이며 초연함이다."(SN V, p.421) 또한 "이것은 '비구들이여, 무위(無爲, 무조건적인 것)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탐욕의 소멸(貪盡, rāgakkhaya), 증오의

이른바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속에서 말하는 평화임은 말할 나위없다.

사회과학에서는 보편적인 사회법칙(社會法則, Social law), 즉 사회현상의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회법칙 발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불교에서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다음과 같다.

"파멸을 가져오는 권력이 포기되거나 노력을 하는 사회, 정복과 패배에서 멀리 떠난 평온과 평화가 승리하는 사회, 죄 없는 종교적 박해가 격렬하게 비난 받는 사회,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무력과 경제적 전쟁으로 수백 명을 정복한 사람보다 존경받는 사회, 증오는 자비에 의해 정복되고 악의 선에 의해 정복되는 사회, 적의 질투 악의 탐욕이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연민이 억지로 행동하게 하는 사회, 최소한 살아있는 것[有情]을 포함한 모두가 공평, 존중, 사랑으로 교섭되는 사회, 물질적 만족의 세계에서 평화와 조화로움 생활은 궁극적 진리, 열반의 증득이라는 가장 높고 고귀한 목표로 주의를 돌리는 사회를 창조하는데 있다."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London: Gordon Fraser, 1959), pp.88-9]

초기불교, 이상사회 건설 위해

사회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돌려

명상은 온 세상 평화에 기여해

자기완성하면 곧 국토완성

소멸(殫盡, dosakkhaya), 어리석음의 소멸(癡盡, mohakkhaya)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무위라고 부른다."(SN IV, p.359) 또한 "라다(Rādhā)여, 갈애의 소멸이 곧 열반이다."(SN III, p.190)

이처럼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열반이다. 한편 열반은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세속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적정(寂靜, santi)에 해당된다.

따라서 열반적정이야말로 개인은 물론 우리 인류가 갈망하는 진정한 평온(平穩) 혹은 평화의 세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개인적으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또한 불교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다. 전자는 개인완성이요, 후자는 국토완성이다. 후자를 다른 말로 불국(佛國)의 지상건설(地上建設)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러한 이상사회는 어떻게 완성하는가. 초기불교에서는 사회교(社會苦)를 제거하고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관점은 사회구성원, 즉 개인의 문제로 되돌린다. 왜냐하면 불교는 언제나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돌아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으며, 집단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우 뽀디파 사야도는 "우리가 명상하는 것은 온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기완성이야말로 국토완성의 토대가 된다는 말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심정정 국토청정(心淨淨國土淨淨)"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화연구원)소장



'완주 화암사 극락전'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보물 제663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을 국보 제316호로 승격 지정했다.

'완주 화암사 극락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집으로, 이 건물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국내 유일의 하양식(下昂式) 구조로, 1981년 해체 수리 때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정유재란 때 피해를 입고 그 후 선조 38년(1605) 중건됐다.

하양구조는 보통 내단(內端)은 보나 도리에 고정해 지붕의 하중을 받게 하고 외단(外端)은 처마를 받치게 하여 두공을 중심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일찍이 중국에서 발전되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사용된 구조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건물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유물 등을 통해서만 그 존재의 가능성을 추정해왔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하양식 목조건축으로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국보 제316호로 승격된 완주 화암사 극락전

으로 가치가 뛰어난 완주 화암사 극락전을 국보로 승격 지정하여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한국불교 근대성은?

10일, 한국불교연구원 국제학술행사

일본강점기로 대변되는 한국불교의 근대기를 진단하는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민웅)은 12월 10일 오전 9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한국 불연 이기영 박사 제15주기 추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근대성과 불연 이기영의 불교·불교학'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김환수 美 듀크대 교수가 '불교식민주의'를, 김영진 동국대 연구교수가 '근대 중국 불교에서 전통의 경쟁과 개조'를, 허남린 가 브리티시콜롬비아대 교수가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불교적 제국주의의 뿌리'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근대성을 조망한다. 제2부 '불연 이기영에 있어서 근대 불교와 불교학'에는 조운수 교수(서울대) 등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주프로그램CD
명리보감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1. 명리작명판 사주명리 + 작명 + 궁합 + 택일 + 고객관리
2. 명리통합판 (1.명리작명판) + 주역.육효 + 재미두수 + 양택
3. 기문통합판 (2.명리통합판) + 기문 + 육임 + 구성학 + 현공

사주명리.육효 동영상강의DVD제공하여 초보자도 공부하며 사용가능.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등 검색하세요. www.goodcycle.com

명리보감 역학연구소
☎ 031)493-3581